

복귀 시동 건 김하성 “몸 상태 완벽”

오른쪽 어깨수술 완전히 회복
팀과 동행 합류 시점 조율 중
루키리그서 실전 감각 되살려
감독 “부담 적은 2루수 기용”

복귀를 앞둔 김하성(29)이 몸 상태를 완벽하게 회복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다만 오랜 기간 실전 경기에서 투수의 공을 보지 않은 만큼 동체시력(움직이는 물체를 정확하고 빠르게 인지하는 능력) 회복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탬파베이 레이스의 김하성은 21일(한국 시간) 지역지인 탬파베이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그 동안 구단과 트레이닝 파트에서 잘 돌봐주셨다”며 “현재 몸 상태는 매우 좋다”고 밝혔다. 이어 “몸 상태가 좋아서 재활 경기도 잘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하성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소속이던 지난해 8월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경기 중 오른쪽 어깨를 다쳐 10월에 수술대에 올랐다.

그는 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으로 탬파베이와 2년 최대 3100만 달러(약 431억 원)에 계약한 뒤 재활 훈련에 전



탬파베이 레이스의 김하성(왼쪽)이 지난달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펙코 파크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경기를 더그아웃에서 지켜보고 있다. AFP=연합뉴스

념했다. 현재 김하성은 탬파베이 선수단과 동행하며 복귀를 향한 막바지 단계를 밟고 있다. 이번 주말엔 마이너리그 루키리그에 출전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하성은 “아개 힘과 송구 속도는 괜찮다”며 “다만 재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수의 공에 익숙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몇 개월 동안 투수의 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선을 다해 적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복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재활을 위한 마이너리그 등록 옵션 기간이 20일인 만큼 늦어도 6월엔 바키리그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케빈 캐시 탬파베이 감독은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 탬파 조지 M. 스타인브레너 필드에서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 경기를 앞두고 현지 매체에 “김하성의 복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오랜 기간 실전 경기를 치르지 않은 만큼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활 기간엔 우선 지명타자로 출전하다가 (송구 부담이 적은) 2루수로 뛰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탬파베이 타임스는 “루키리그에서 뛰 뒤 마이너리그 트리플A에서 나머지 재활 훈련을 하고 다음달 초에 탬파베이 로스터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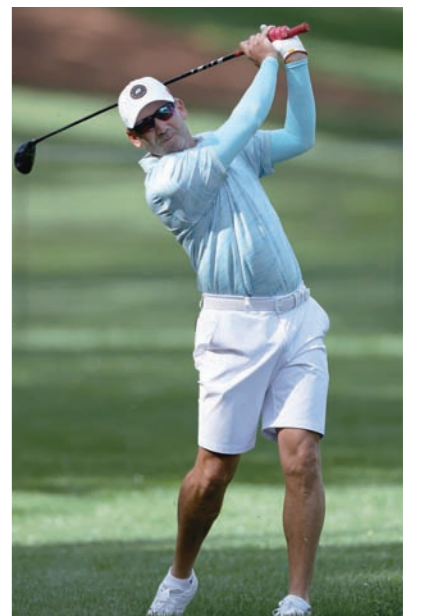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보기 하나 때문에…
US오픈 26년 출전 무산
가르시아 ‘통한의 눈물’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사진)의 US오픈 골프대회 26년 연속 출전이 보기 하나 때문에 무산됐다.

가르시아는 21일(한국 시간) 미국 텍사스주 달러스의 벤틀리 컨트리클럽에서 치른 US오픈 예선에서 탈락했다. 36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열린 예선전에서 가르시아는 36번째 홀에서 보기를 적어내 7명이 겨루는 연장전에 합류하지 못했다.

예선전 탈락으로 가르시아는 다음달 13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오크몬트 컨트리클럽에서 시작하는 US오픈에 나설 수 없게 됐다.



신유빈-유한나 “세계탁구선수권 8강 갑니다”

여자 복식 독일 조에 3-1 승
이은혜-김나영도 동반 진출

2025 국제탁구연맹(ITTF) 세계선수권 대회(개인전)에서 메달을 노리는 신유빈(대한항공)-유한나(포스코인터내셔널) 조와 이은혜(대한항공)-김나영(포스코 인터내셔널) 조가 나란히 8강에 올랐다.

신유빈-유한나 조는 21일 오전(한국 시간) 카타르 도하의 루사일 스포츠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여자복식 16강에서 독일의 아네트 카우푸만-샤오나 산 조를 3-1(11-8 11-3 4-11



11-6)로 꺾었다. 이로써 8강에 오른 신유빈-유한나 조는 오도 사쓰카-요코이 사쿠라(일본) 조와 마테야 힌타-레아 라코바츠(크로아티아) 조의 승자와 준결승 진출을 다툰다.

신유빈은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복식 금메달을 합작했던 전지희(은퇴)가 태극마크를 반납하면서 유한나와 파트너를 이뤄 이번 세계선수권에 출전했고 64강과 32강, 16강 관문을 무난하게 통과했다.

신유빈-유한나 조는 독일 조에 3게임을 내준 뒤 찰떡 호흡을 앞세워 4게임을 11-6으로 따내며 8강행을 확정했다.

신유빈은 임종훈(한국거래소)과 듀오를 이룬 혼합복식에서 대만의 린준주-정이정 조와 8강 대결을 앞두고 있고, 여자 단식에선 32강에 올라 있다.

2000년부터 작년까지 25년 연속 US오픈에 출전했던 가르시아는 26년 연속 출전 문턱에서 좌절했다.

그는 작년에도 US오픈에 나가지 못할 뻔했지만 대기 선수였다가 간신히 출전할 수 있었다.

가르시아는 2020년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터스에 출전하지 못할 때까지 메이저대회 8개 대회 연속 출전 기록도 세운 바 있다.

한편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의 아들 찰리가 US오픈 골프 대회 예선에서 탈락했다. 찰리는 9일(한국 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웰링턴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US오픈 골프 대회 지역 예선에서 3오버파 75타를 기록했다.

출전 선수 84명 중 공동 33위에 머문 찰리는 상위 5명에게 주는 최종 예선 진출권을 따내지 못했다.

북한 보위부 비밀 요원의 자유·인권·민주주의 향한 여정



한원재 저음 | 312쪽 | 15,000원 | 도서출판행복에너지

신문사 추천도서

한국일보

조선일보

문화일보

세 번의 탈북·세 번의 체포… 中 연길 감옥·北 보위부·안전부 감옥 수기
희망 잃은 땅을 떠나며 피로 쓴 원고… 폭정 종식 앞당기는 무기 되길

“이 글이 북한에 복수할 유일한 길”

지금 대한민국에는 수천만 북한 노예들의 운명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노예주와 사이 좋게 지내려는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평범한 인텔리 한원재 씨가 남긴 이 글을 통해 북핵 주민들의 절규에 대한민국이 과연 어떻게 응해야 할지 그 해답을 찾길 바란다. -태영호(전 북한외교관)

질식할 것 같은 고통과 당장 닥칠 것만 같은 죽음의 공포가 배인 저자의 거친 숨결이 행간마다 강렬하게 녹아있다. 목숨과 바꾼, 중국과 북한의 감방에서 절규하며 피로 쓴 이 수기가 노예공화국 북한의 폭정 종식을 앞당기는 강력한 무기가 되길 소원한다.

-이영현(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대표)

노예 공화국 북조선 탈출